



11과.  
2026년 6월 13일

# 난관과 좌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 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됨이니” (롬 5: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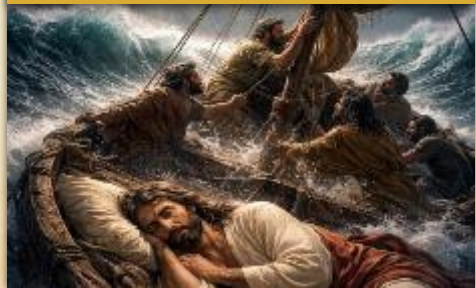


우리는 죄와 고통으로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좌절을 겪을 때 어떻게 대처하나요?

11과에서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이 여러 가지 난관을 겪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모본을 통해서 같은 상황에 직면한 우리는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연구할 것입니다.

삶의 태풍



질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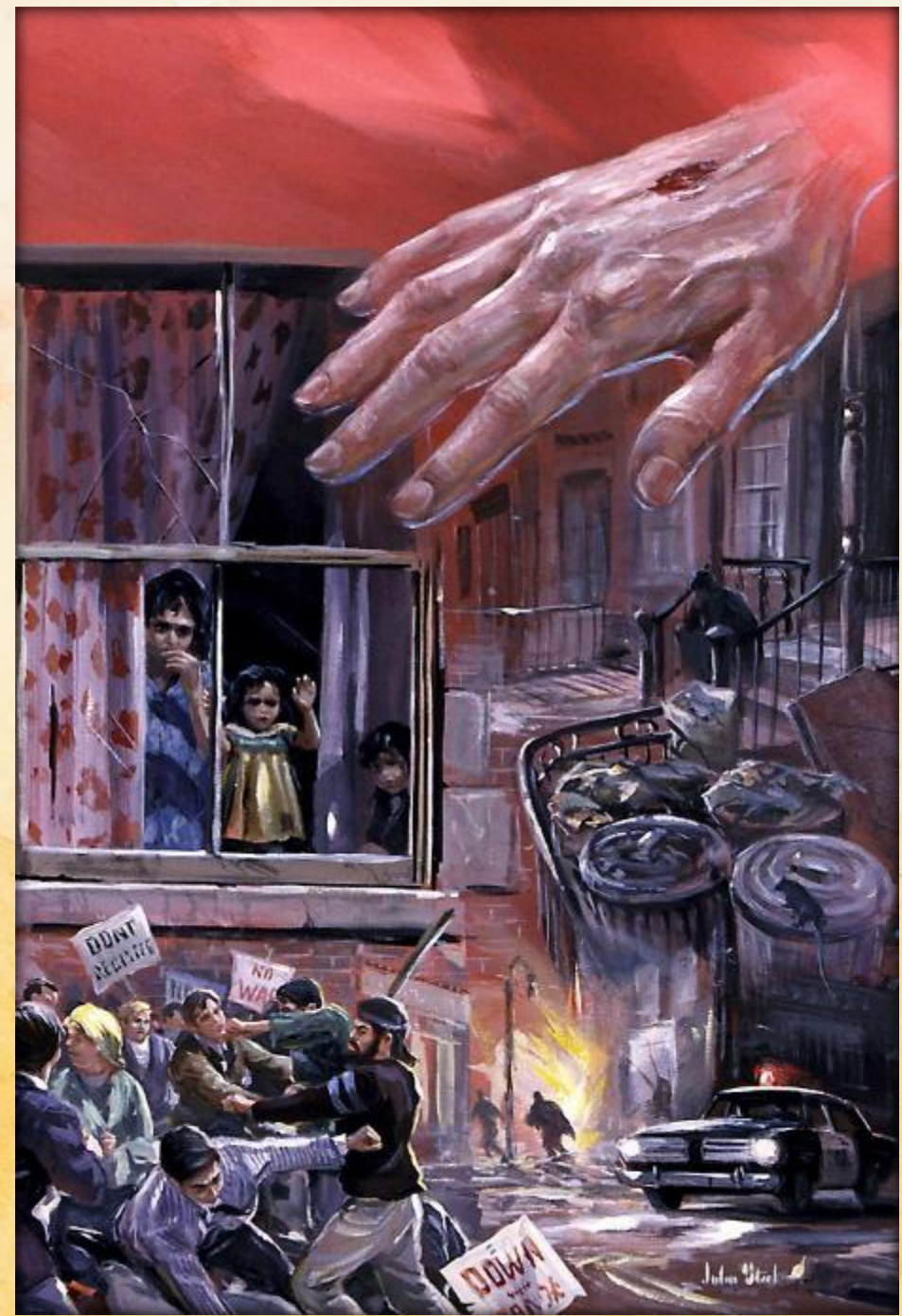
재난



좌절



예수님을 바라 봄



# 삶의 태풍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막 4:37)

전문직 어부였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한밤중 폭풍우를 뚫고 갈릴리 호수를 향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폭풍이 그들을 덮쳤고, 거센 바람이 파도를 일으켜 배에 물이 차오르며 그들의 목숨은 위태로워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은 어디 계시지? 주무시나?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시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으신 것인가?’라며 현실의 위기에 휩싸였습니다(막 4:35-38).

우리 삶에도 폭풍이 옵니다.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지만, 그분은 마치 주무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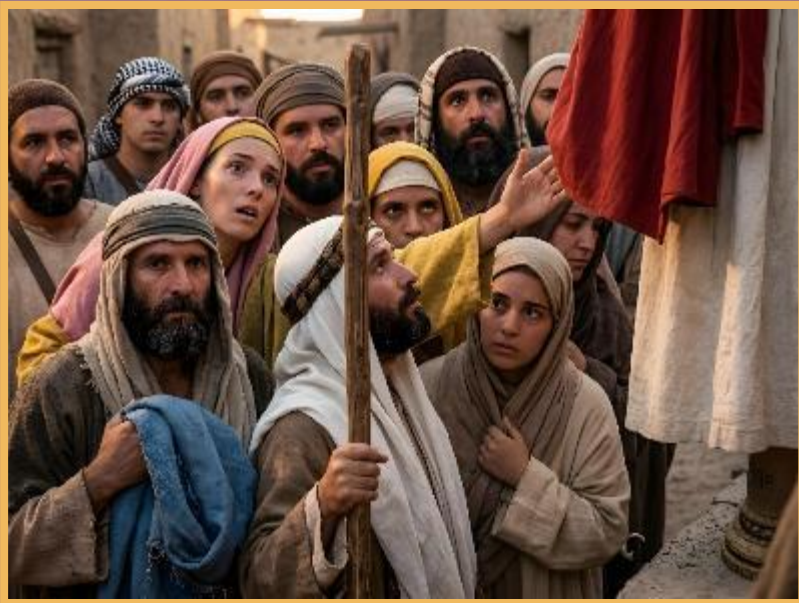
폭풍을 꾸짖어 잠재우실 예수님을 기다리십시오. “잠잠하라, 고요하라”(막 4:39). 예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벧전 5:7). 예수님께서서 우리의 폭풍을 잠재우실 때 그분을 찬양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막 4:40-41).



# 질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일러라” (막 5:28)

멈추지 않는 출혈로 12년 동안 고통 속에서 병을 고쳐 줄 의사들을 찾아다니다가 빈털터리가 된 한 여인이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막 5:25-26). 현재도 무상 의료 혜택이 없는 나라들이 많으며,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현실입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는 질병에 갇혀 숨도 제대로 못 쉬는, 그 어떤 위안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 안에서 치유의 희망을 보았고, 그녀의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막 5:27-29).

우리는 예수님께서 유능한 의사들을 통해 치유하시거나 직접 기적을 베푸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짐과 근심을 그분께 맡기라고 호소하십니다(마 11:28-30).



# 재난

“나의 이 가족,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 19:26)

전쟁, 폭력, 그리고 자연재해는 욥의 삶을 송두리째 뽑아  
놓았습니다(욥 1:13-19). 우리 모두는 자연재해나 이 세상에  
만연한 악으로 인한 재앙과 재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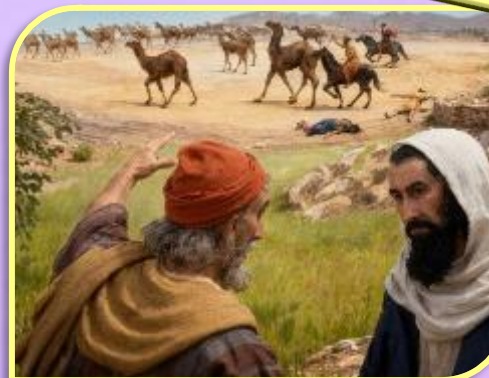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욥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욥은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떠나지 않았습니다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가장 암울한 시간에도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욥 19:25-27).



우리가 낙심에 빠지지 않으면, 가장 힘든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시는 경험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연약함  
속에서 능력을, 낙심 속에서 용기를, 그리고 재난  
속에서 소망을 얻을 능력을 주십니다(요엘 3:10;  
롬 5:3-5).

여러분이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피심만이 가장 안전하고  
변치 않는 진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 좌절과 절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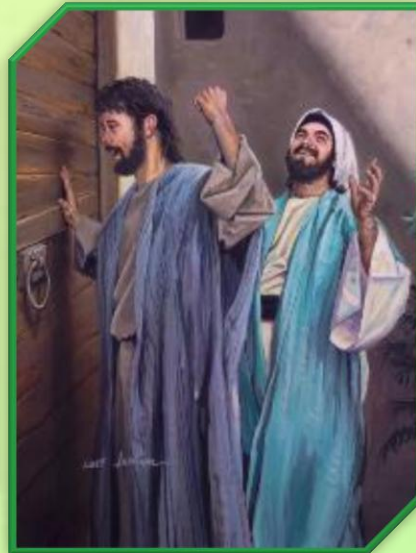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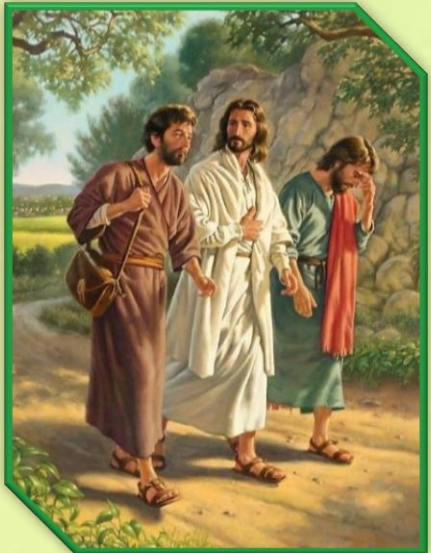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눅 24:21)



믿음의 눈(관점):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시다.  
현실: 예수님이 죽으셨다(눅 24:18-21).

제자들은 크게 절망한 나머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눅 24:22-24).

예수님은 인내심을 가지고 그들이 희망을 되찾도록 도와 주셨습니다. 마침내 “그들의 눈이 열렸고”(눅 24:31), 절망에 빠져 있던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 달려갔습니다(눅 24:32-35; 고후 1:4). 그들의 경험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 의심의 뿌리가 마음속에 자라도록 놔두지 말아야 합니다.
-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좌절할 때에도 우리와 함께 걸으십니다.
- 우리가 예수님께 마음을 열면 우리의 난관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 예수님은 내가 처한 현실이 무엇인지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 예수님을 바라 봄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롬 8:18)

엘렌 화이트 여사가 깊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환상을 보았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고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이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머리를 쓰담으시며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장엄한 광경을 보았고, 마치 하늘나라의 안전과 평화 속에 사는 듯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 환상을 통해 화이트여사는 희망과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롬 8:28)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 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 줄 것입니다” (빌 4:6-7)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시험을 견디어 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약 1:2-4, 12)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고후 12:9)

“누구에게나 뼈아픈 실망과 깊은 낙담이 찾아옵니다. 슬픔이 삶을 잠식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난 그분의 자녀들에게 인자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믿기 어려운 날들, 온갖 고난이 영혼을 괴롭혀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편이 낫겠다고 여겨지는 날들이 옵니다. 바로 이런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붙들던 손을 놓아버리고, 의심과 불신의 노예로 전락합니다. 하지만 절망의 시간에 영적인 통찰력의 눈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다면, 천사들이 ‘나 자신’이라는 우리에게 갇혀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나’를 구원하려 바쁘게 일하고, 영원한 산보다 더 튼튼한 반석 위에 내 발을 세워 주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며, 새 믿음과 새 생명이 속에서부터 솟아오를 것입니다.”